

탈정치적 생명정치와 노인의 존재론*

서동수**

1. 서론
2. 생애주기 혹은 의인화된 계획적 진부화
3. 탈정치적 생명정치와 관용의 폭력성
4. '보조 기관'을 장착한 젊은 노인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비판적 노년학의 관점에서 오늘날 노인의 존재론적 위상을 연구하였다. 현재 노년학의 주된 흐름은 '성공적인 노화'에 있다. 과학기술과 결합한 항노화 산업은 현재 가장 각광받는 분야이다.

기존의 노화 정책은 노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구성한다. 그들은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무능력한 잉여적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애니메이션메이션 〈노인Z〉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이다. 여기서 노인들은 복지 시스템의 부속물이 되거나 신자유주의 정책의 희생자로 등장한다. 노인 복지의 주요 이론인 생애주기는 제품의 수명주기와 다르지 않다. 게다가 상품의 계획적 진부화의 논리처럼 노년은 폐기되어야 할 존재로 구성되고 있다. 탈정치적 생명

* 본 논문은 2024년도 신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조교수

정치 속에서 노인은 관용의 이름으로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노인의 고립과 유펜은 차이의 인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요양원은 연성화된 감금기관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보았듯 ‘예외 상태’ 속에서 노인들은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는 존재, 즉 정치적, 법적으로 배제된 호모 사케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안티에이징을 신비화하고 숭배하는 사회 속에서 온전한 ‘늙음’은 불가능하다. 요컨대 늙음 없는 늙음, 노인 없는 노인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늙음을 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에서 ‘늙음’과 ‘노인’의 존재에 대한 진지한 사유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노인들의 겪는 진정한 고통을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용기는 노인과 사회를 위한 새로운 언어(담론)의 발명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는 다양한 학문 간의 통합 과정을 통해 비로소 형태를 갖춰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초고령화사회, 노인, 존재, 계획된 진부화, 탈정치적 생명정치, 관용, 〈노인Z〉, 〈나, 다니엘 블레이크〉, 〈노인들〉, 〈노인의 전쟁〉)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비판적 노년학(gerontology)의 관점에서 오늘날 대중서사에 나타난 노인의 존재론적 위상을 다루는 데 있다. 노인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자본주의의 시작과 관련이 깊다. 생산성·효용성·속도를 앞세운 자본주의의 출발은 노인의 위상에 큰 변화와 위기를 가져왔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9월 26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93만 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20.6%에 이르는 2025

년을 초고령사회의 원년으로 보고 있다.¹⁾ 시장경제는 증가하는 노인을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치 곤란한 ‘무리’로 보고 있다. 결국 초고령화 사태는 “저출산 보다 더 큰 문제”이며, “이대론 한국 망한다”²⁾는 종말론적 시선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종말의 책임 소재와 극단적 생존주의로 이어진다. 청년 세대는 압박한 파국의 책임을 노인에게 전가하고 그들을 혐오와 분노의 대상으로 좌표화 한다. 반면 노인들은 죄의식과 억울함 사이를 왕복하다 극단적 세력이 되기도 한다. 이제 종말론적 인식 앞에 청년과 노인의 최대 임무는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인가’이다. 그들에게 ‘생존’은 모든 것의 최종심급이자 지상과제가 된다. 노인 관련 서적의 대부분이 ‘서바이벌 가이드(노후 대책)’를 표방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노인에게 ‘100세 시대’는 생존 투쟁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초고령화 시대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은 기존의 인종, 민족, 계급 문제 예다 ‘노인’이라는 또 하나의 갈등 요소를 첨가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노년학은 이러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 상담심리, 정신의학 등과 결합한 주류 노년학은 노화의 예방과 지연을 통한 ‘성공적인 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항노화의학은 줄기세포, 유전자 조작, 나노기술, 항노화제 등을 통해 노화라는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건강하라!, 행복하라!’는 초고령사회의 지상명령이자 지배적인 법이 되고 있다. 건강 유지를 위한 영양보충제, 호르몬 보충 요법, 스킨 케어 제품 뿐만 아니라 70세 이상 노인 성형 수술(황혼 성형)이 최근 3년간(2018~2021) 평균 28.2%이상 증가했으며, 미국도 지난 10년간 성형 수

1)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7690>

2) <저출산 보다 더 큰 문제...‘이대론 한국 망한다?’>, 『SBS Biz』, 2024.07.01., 접속일: 2024.10.14., <https://v.daum.net/v/20240701120008553>.

술 건수가 77% 증가했다.³⁾ 그러나 '주류 노년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년을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에 가둘 뿐 아니라 취약 계층 노인들을 소외시키는데 있다.'⁴⁾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소비에 비례하는 '성공적인 노화'는 취약 계층이나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임무이다. 이처럼 주류 노년학은 성공적인 노년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다르지 않다.⁵⁾

주류 노년학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인문학적 노년학이다. 주류 노년학이 노화의 '예측과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인문학적 노년학은 노화의 '해석과 자기실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인문학적 노년학은 기존의 노화 정책이 의존성만 키운다며 노년의 관리에 저항한다. 그리고 노화를 규정하는 물질주의적 명제들을 의심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평생 겪는 경험의 총합은 시장경제의 가치로 평가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문학자들은 노화를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사고 대신 삶의 충만함과 성숙의 시간으로 재구성하려 한다. 인문학적 노년학은 노화의 영적, 도덕적 차원을 복원하고자 노력한다.

반면 비판적 노년학은 주류 노년학이 은폐하고 있는 권력과 계층, 인종

3) <70세 이상 성형외과 수술 건수 급증... '눈 리프팅' 성형 많아>, 『쿠키뉴스』, 2021.4.22., 접속일: 2024.10.14.,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220043>.

4) 마켓릿 크룩생크, 『나이들을 배우다-젠더, 문화, 노화』, 이경미 역, 동녘, 2016.

5) 관련된 사례로 박동석·김대환·이연선 공저의 『고령화 쇼크』(굿인포메이션, 2003)를 들 수 있다. 이 책의 부제는 '준비되지 않은 당신과 국가를 향한 시한폭탄'이다. 이른바 고령화 사회는 타이머가 작동 중인 시한폭탄이라는 것이다. 저자들의 해답은 '성공적인 노화'이다. 이 책의 목적은 목차만으로도 알 수 있는데, '늙으면 돈이 효자-노후대비 재테크 전략/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노후가 편안하다/ 풍요로운 노후 30대에 결정된다/ 평생 학습하라/패자부활전을 위한 5계명/건강,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확실한 보험/고령화시대 명사(名士)들의 건강비법' 등은 '성공적인 노화'가 철저한 개인주의와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가능함을 보여준다.

과 젠더 등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다. 특히 비판적 노년학의 발판인 정치경제학은 노인을 복속시키고 변방으로 밀어내는 구조에 자본주의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다. 비판적 노년학은 노인의 의존성을 키우고 그들을 통제, 지휘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업자, 대행사, 정책 입안자, 그 밖의 전문가들을 ‘노인 겨냥 사업’이라고 지칭한다. 주류 노년학이 권력과 지배의 이슈를 다루지 않음을 파악한 비판적 노년학자들은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 등을 통해 어떻게 노인이 관리되며, 관리에 맞서는 노인의 저항은 어떤 형태를 띠는지 분석한다.⁶⁾

이처럼 오늘날 노인은 일관된 존재로 해명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의 문턱에 선 노인들은 이래저래 불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 노인 문제와 관련해 사회복지나 의학의 차원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인문학에서도 노인의 존엄이나 생명윤리, 고독, 소외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⁷⁾

이에 본고에서는 오늘날 노인의 존재론적 위상을 비판적 시선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생애주기의 경제적 논리로 인한 노인의 잉여성과 오늘날 주류가 된 탈정치적 생명정치의 관용적 태도로 인한 노인의 소외 그리고 항노화의학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고자 한다.

6) 여기서 언급한 인문학적, 비판적 노년학은 마거릿 크룩생크, 앞의 책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7) 주목할 논의로는 최성민, 「존엄한 죽음과 존엄한 삶의 조건들」, 『대중서사연구』 제30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4; 김희경, 「“내가 죽으면”: 초고령화 일본사회에서 생명정치와 죽음윤리」, 『한국문화인류학』 제51권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8; 권혁남, 「고령화 시대 노인자살에 관한 윤리적 분석」, 『생명윤리』 제12권 2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21; 조미라·김양지, 「포스트휴먼과 그 이웃(1)-기술시대의 노인」,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4권, 2020; 박형욱, 「노쇠한 사이보그」, 『과학기술학연구』 제13권 1호, 한국과학기술학회, 2013 등이 있다.

2. 생애주기 혹은 의인화된 계획적 진부화

기타쿠보 히로유키(北久保弘之) 감독의 애니메이션 〈노인 Z〉는 1991년 작품이다.⁸⁾ 1991년은 일본의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던 해이자 단카이세대(團塊世代)⁹⁾의 정년퇴직이 시작되는 2007년을 초고령사회의 출발점으로 확신하던 때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단카이세대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고령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 간호(介護)¹⁰⁾ 서비스 수요의 급증과 비용 증가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노인 Z〉는 1991년에 오늘의 노인 문제를 직시했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¹¹⁾

〈노인 Z〉의 서사는 일본의 고령화와 노인 간호를 해결하기 위해 후생성이 간병 로봇 Z-001호를 개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 6세대 컴퓨터'를 탑재한 Z-001호는 초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대상자의 몸에 딱 맞는 침대식 전자동 간병 기계다. 여기에는 간병의 기본 기능인 목욕, 식사 뿐 아니라 배변 처리, 실시간 건강검진, 운동, 오락, 연락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다.¹²⁾ Z-001호기의 실험 대상은 아내 하루코와 사별하고 오래된 목조 아

8) 『아키라AKIRA』의 원작자이자 감독인 오모토 가츠히로(大友克洋)가 각본과 메카닉 디자인을 담당했다.

9)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1949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일본 경제기획청 장관을 지낸 경제평론가 사카이야 다이치의 소설 '단카이시대의 세대(1976년)'에 처음 등장해 인구사회학적 용어로 정착되었다. (Daum 백과 참조)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18XX843008679>. 검색일: 2024.10.04.)

10) 간호(介護)는 1980년대 말에 사용되기 시작한 일본의 노인 복지 용어로 '옆에서 붙어서 돌보다, 수발하다'라는 의미이다.

11) 유수정, 「초고령사회 SF적 상상력의 구현」, 『일본문화연구』 제79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21, 262쪽.

12) 실제로 이 작품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간병침대가 2009년부터 일본에서 개발 출시되었다. 종이기저귀 제조업체인 UNICHARM사는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노인이

파트에서 혼자 살던 87세의 노인 타카자와 키쥬로이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AI 간병로봇과 노인의 의식이 싱크되면서 온갖 소동이 벌어지는 스토리이다.

간병 로봇 고안자인 후생성 관료 테라다는 기자들 앞에서 “스스로 성장, 개량, 발전하는 꿈의 컴퓨터”가 장착된 Z-001이야말로 “가족의 사랑을 도와주며 풍부한 고령사회를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강조한다. 로봇 침대는 말 그대로 노인 간병의 완결판처럼 보인다. 하지만 로봇 침대의 완결성이 강조될수록 노인 존재의 수동성 역시 함께 부각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모든 행위(식사, 소화, 배변, 목욕, 운동, 건강 체크 등)의 주체는 노인이 아닌 테크놀로지이다. 테크놀로지는 개체의 의지나 의욕, 책임감마저도 거세시킨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 키쥬로는 말 그대로 수동적 존재의 극점이다. 모든 의지가 소거된 그는 희망도, 꿈도, 열정도 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른바, 니체가 말한 ‘미래에 나타난 가장 빈약한 인간’의 현현이다.

〈노인 Z〉는 오늘날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은유하고 있다. 노인 복지의 취지가 노인의 보호와 생의 안정적 지속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의 노인노동정책이나 노인건강보장정책 등도 노인의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의 활성화,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 등 생의 안전성 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도 지적하듯이 노인복지정책은 의도와 달리 노인의 수동성과 잉여성을 강화한다. 게다가 노인복지를 시혜성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와 질 낮은 일자리, 낮은 보수, 일회성 노동

가장 원하는 문제인 배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배설침대인 'Wells'를 출시했으며, 우리나라도 말동무에 배설 처리까지 가능한 '돌봄로봇'을 큐라코(종합의료기기 개발회사)에서 시판하고 있다. <[오후초대석] 말동무에 배설보조까지...고령화 사회에 '돌봄로봇' 주목>, 『SBS Biz』, 2023.8.22., 접속일: 2024.10.14., <https://biz.sbs.co.kr/article/20000132431?division=DAUM>.

등은 노인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몰아간다. 더 나아가 미디어는 생애의료비 50% 이상이 65세 노인에게 집중되는 바람에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약화가 초래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디어의 ‘공세’ 속에서 노인은 무능력한 잉여적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은 힘을 얻는다.

켄 로치(Ken Loach)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는 <노인 Z>가 보여준 노인의 수동성과 잉여성을 ‘지금 여기(here and now)’의 사태로 재현하고 있다.¹³⁾ 영화는 심장병 진단을 받은 다니엘이 질병 수당 신청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면서 시작한다. 영화는 영국 보수당의 민영화가 야기한 복지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노인을 무기력한 존재로 확대 재생산하는지 보여준다. 다니엘은 수십 년 목공 일을 해온 베테랑이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시민이다. 하지만 그의 존재가치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결정된다. 민영화는 노인복지를 효율성에 입각한 시스템으로 전환시켰다. 노인 개개인을 전담하는 직원들이 배치되었으며, 모든 절차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시스템은 다니엘을 철저히 수동적이며 무기력한 존재로 만든다. 상담직원에게 다니엘의 의사소견서(심장병으로 인한 권고 휴직)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의 상담 매뉴얼에는 팔들기, 전화걸기, 모자 쓰기 등 기능 테스트만 들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지 멀쩡하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질병 수당은 불허된다. 대신 직원은 실직 수당 신청을 명령한다.¹⁴⁾ 다니엘의 무능력은 이때부터 강조된다.

13) 2016년 켄 로치 감독이 만든 영국 영화로 2016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다. 로치 켄 감독은 2006년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에 이어 두 번의 황금종려상을 받은 7명의 감독 중 한 명이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현 영국 사회의 부조리한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짚어냈으며, 평범한 이웃이 영웅이 되는 과정을 진지하게 그려낸다는 평을 받고 있다.

14) 영화는 다니엘을 통해 영국인 특유의 시니컬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영화는 영국

각종 수당 신청부터 이의제기, 여러 복지 프로그램 등은 오직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 근처도 가본 적 없는 다니엘에게 이 시스템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자 거대한 장벽이다. 다니엘이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을 표하자 직원은 인터넷에서 신청안내서를 다운받으라고 말한다. 컴맹이라고 말하자 직원은 자동전화상담을 권한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모든 상담원이 상담 중’임을 무한반복한다. 구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력서 제출 등 구직 활동의 증빙이 필요하다. 이력서를 써 본 적 없는 다니엘은 ‘이력서 작성법 특강’을 이수해야 한다.(미 이수할 경우 수당신청 자체가 안 된다.) 하지만 강사는 이력서 작성법조차 모르는 구직희망자들 앞에서 성공 계명 따위만 떠든다. 시스템 앞에 절망한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인터넷 신청을 시도해보지만 계속되는 실수와 시스템 오류로 결국 실패한다.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 다니엘이 불만을 토로하자 경찰은 그를 소란죄로 연행한다. 이는 단지 컴맹 노인의 개인적 불행이 아니라 시스템이 개별 존재들을 어떻게 구성해 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인 Z〉와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기저에는 생애주기와 경제 논리의 은밀한 공모가 자리하고 있다. 생애주기는 심리학에서 출발했지만 여기에는 경제 논리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생애주기의 사전적 개념 -“지출과 저축의 양상에 따라 일생을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¹⁵⁾ -에도 경제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생애주기 이론가로 유명한 모델리아니의 가설은 자산과 노동 소득의 구분을 통해 미래의 소득과 남은 인

인의 시니컬한 특성이 불평, 불만의 모습뿐만 아니라 부조리한 사회에 저항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5)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615246&supid=kku010488514>. (검색일: 2024.10.04.)

생을 고려하여 현재의 소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생애주기'는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마다 '해야 하는(must)' 경제적 활동에 따라 정상성을 규정한다.¹⁶⁾ 이러한 방식은 '노인'의 존재론적 위상을 경제성에 종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중년기와 노년기를 '양의 저축'과 '음의 저축' 시기로 구별하는 것은 노인을 경제적 효용성 면에서 '쓸모없음'의 존재로 규정짓는 학문적 표현이다. 레빈슨은 은유적인 방식으로 노인의 '쓸모없음'을 표현한다. 레빈슨은 성인의 생애주기를 성인 이전(봄), 성인 전기(여름), 성인 중기(가을), 성인 후기(겨울)로 구분한다. 레빈슨도 주기 별 '주요 과제'를 강조하는데, 특히 성인 후기(60세 이상)에는 신체 기능의 쇠퇴와 질병 그리고 살아온 삶에 대한 '수용'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¹⁷⁾ 완곡한 표현이지만 레빈슨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노년기란 모든 것이 쓸쓸히 스러져가는 겨울이며, 따라서 자신의 '쓸모없음'을 수용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는 것이다. 생애주기 이론은 정확하게 '제품수명주기 이론'과 일치한다. 테오도르 레빗이 제시한 제품수명주기(PLC)는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로 나뉜다. 쇠퇴기 제품은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와 신제품의 출시 등으로 생산 감소 및 완전 중단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생애주기의 경제적 버전이다.

생애주기의 또 다른 경제적 버전으로 '계획된 진부화'가 있다. 지금은 익숙해진 진부화 개념은 기술의 진보로 기존의 기계나 설비가 구식으로 전락하는 '기술적 진부화'와 은밀한 설득, 즉 광고와 유행에 의해 제품을 구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심리적 진부화' 그리고 인위적으로 수명을 단축하거나 결함을 삽입하는 '계획적 진부화'로 나뉜다.¹⁸⁾ 계획된 진부화의 목적

16) 모딜리아니 가설은 남상호, 「생애주기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가계자산 분포의 특징」,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제1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참조.

17) 강소량 외, 「50+생애전환교육의 특성과 방향」, 서울시 50플러스재단, 2019, 15쪽.

은 명백하다. 바로 소비의 가속화이다. 이는 계획된 진부화의 개념, 즉 “새로운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기술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¹⁹⁾에서도 알 수 있다. 계획된 진부화는 소비자들을 새것 강박증자(neophilila)로 만든다. 게다가 오늘날 계획된 진부화는 ‘새로움’의 주기를 빠르게 단축시킴으로써 소비의 속도뿐만 아니라 ‘낡은 것’의 폐기 시기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계획적 진부화는 사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즉 존재의 진부화 시기가 경제 상황에 따라 계획적으로 결정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년’ 개념은 ‘의인화된 계획적 진부화’의 단적인 사례이다. ‘정년’은 ‘경제적 인간의 유통기한’의 다른 표현인데, 문제는 이 기한의 결정 방식이 계획적 진부화의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령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직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반면 영국은 65세, 일본과 중국은 70세이며 캐나다는 연금이 나오는 65세에 주로 은퇴를 결정하지만 강제 규정은 없다. 미국도 특정 직종을 제외하면 강제적 은퇴(정년)는 불법이며, 호주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정년이 불법이다. 게다가 인간의 평균수명이 시기적으로 상이했음을 고려한다면 ‘연령정년(진부화)’의 최종심급은 ‘현존재’ 아닌 ‘경제’이다. 그리고 이 최종심급 안에는 ‘낡은 것’의 규정과 폐기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극명한 사례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 보여준 노인에게 대한 국가의 태도이다.

2020년 3월 22일 일요일 늦은 오후, 미 대통령 트럼프는 트위터에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다음과 같이 올렸다 “우리는 바이러스 자체보다 치료가 더 끔찍한 일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15일간의 봉쇄 기간이

18) 세르주 라투슈, 『낭비사회를 넘어서』, 정기현 역, 민음사, 2019, 34-35쪽.

19) 위의 책, 37쪽.

끝나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지 결정할 것이다.”²⁰⁾ 같은 날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TF를 이끌던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감염자들의 이른 업무 복귀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텍사스 주 부지사 덴 패트릭은 <폭스 뉴스>에 출연해 공공보건 조치들이 미국 경제를 망치는 걸 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전국의 “수많은 조부모들이” 자신과 의견이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일터로 돌아갑시다. 일상생활로 돌아갑시다. 바이러스에 휘둘리지 맙시다. 우리 중 일흔이 넘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챙길 것입니다.” 미국의 로이스 베케트가 쓴 책의 제목은 “노인들은 코로나19로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죽기를 원할 것이다.”²¹⁾이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80세 이상의 노인들과 다른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두겠다고 선언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는 건강 상태와 관계 없이 은퇴한 사람들의 병원 입원을 금지했는데, 그들을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간주했기 때문이다.²²⁾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노인에 대한 ‘계획적 진부화 프로젝트’ 아닌가? 파국 앞에서 계획적 진부화는 빛을 발한다. 전지구적 파국 앞에서도 자본주의는 포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자체의 ‘생에 대한 맹목적 의지’가 ‘생존주의(survivalism)’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폭력이다.

20) “WE CANNOT LET THE CURE BE WORSE THAN THE PROBLEM ITSELF. AT THE END OF THE 15 DAY PERIOD, WE WILL MAKE A DECISION AS TO WHICH WE WANT TO GO.”

21) 원제는 “Older people would rather die than let Covid-19 harm US economy”이다.

22) 미국의 코로나 팬데믹 관련 논의는 슬라보예 지젝, 『팬데믹 패닉』, 강우석 역, 북하우스, 2020. 참조.

3. 탈정치적 생명정치와 관용의 폭력성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본격화된 ‘탈정치적 생명정치’는 관용과 폭력의 친연성을 보여준다. ‘탈정치’란 “낡은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벗어나, 대신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하는 정치이다. ‘생명정치’는 인간 생활의 안전과 복지의 제도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정치를 가리킨다.”²³⁾ 이데올로기적 대의를 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생활의 효율적 관리이다. 지젝은 탈정치화로 객관적인 관리와 이해 조정이 정치의 기본으로 남게 되면 결국 사람들의 열정을 촉발시키고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포뿐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명정치는 궁극적으로 공포의 정치라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부당하게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혹은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막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를테면 이민자들에 대한 공포, 범죄에 대한 공포, 성적인 타락에 대한 공포, 세금 폭탄에 대한 공포, 괴롭힘에 대한 공포 등이 그것이다.

노인에 대한 공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노인 쓰나미’, ‘고령의 파도’, ‘시한폭탄’, ‘노인이라는 전염병’ 같은 용어들은 노인 인구에 대한 공포를 생산한다.²⁴⁾ 그런 측면에서 좀비 영화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좀비는 주로 소비의 욕망에 포섭된 후기 자본주의의 대중이나 혁명 주체로서의 노동자 계급 또는 인종주의적 시각에서 연구되었다.²⁵⁾ 하지만 오늘날 좀비 영화야말로 초고령화 사회가 초래할 임박한 파

23)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이혁우 외 역, 난장이, 2014, 73쪽.

24) 노인 관련 비유는 마거릿 크룩생크, 앞의 책, 83-84쪽 참조함.

25) 서동수, 「좀비, 엑스 니힐로의 주체와 감염의 윤리」, 『대중서사연구』 제25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9.

국의 가상 체험이 되었다. 우선 좀비의 모습에서 노인을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구부정한 자세로 느릿느릿 걷는 모습(walking dead)은 영락 없이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모습이다. 좀비의 초점 없는 동공과 늘어진 회색의 살가죽은 노화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공교롭게도 미디어는 늘어나는 노인을 향해 “회색군단”이라고 부르고 있다. 게다가 피터 피터슨의 책 제목 『회색의 여명: 다가올 고령의 파도가 미국과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²⁶⁾와 테드 피시먼의 『회색 쇼크』(반비, 2011) 등은 좀비 영화의 실사판 제목처럼 보인다. 좀비의 위력은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염성에 있는데, 미국 AMC에서 제작한 좀비 아포칼립스 드라마 <워킹 데드>(2010~2022)에는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온다. 미감염 상태에서 사망한 자들이 좀비로 변하는 것인데, 이 장면이 전하는 진실은 모두가 좀비 바이러스의 보균자이듯 모든 인류가 ‘노화 바이러스’의 보균자이며 그것이 곧 ‘나’라는 사실이다. 조지 로메로의 영화 <시체들의 새벽>(1978)에서 인간들은 좀비를 보고 “그들이 우리야(they are us)”라고 말한다. 결국 좀비와 인간, 청년과 노인은 ‘시차적 동일자’인 것이다. 좀비들에게 쫓기는 생존자 대부분이 ‘젊은이’이며, 언제나 (극)소수라는 점에서 좀비 영화는 ‘노인천국’ 속에서 벌어질 젊은 세대의 절멸 시나리오처럼 보인다.

공포의 정치는 오늘날 ‘차이의 인정’, ‘타자성의 존중’과 같은 ‘관용’의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오늘날 타인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용의 태도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실천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요한복음』 20:17)는 명령이 내재해 있다. 요컨대 타자를 인정하지만, 타자가 우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즉 이 타자가 진정

26) 원제는 Gray Dawn: How the Coming Age Wave Will Transform America-and the World(Times Books, 1999) 책 제목은 마거릿 크룩생크, 앞의 책, 85쪽에서 인용함.

한 타자가 아닌 한에서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타자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다는 것이자 그의 생활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차이의 인정(문화상대주의)은 괴롭힘에 대한 강박적 공포에 다름 아니다. 타자의 존중에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명령이 선행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거리두기'의 태도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가 중요한 인권으로 부상하는 이유이다. 오늘날 주류가 된 듯 보이는 포스트모던적 사랑의 방식은 '나는 너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 하지만 나를 만지지는 마'라는 기이한 모습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해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나의 쾌락에는 방해물이라는 것이다. 타자를 사랑하되 나의 쾌락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관용'의 태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용이 폭력과 밀접한 공모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폭력이라고 하면 범죄와 테러, 사회 폭동, 국제 분쟁처럼 명확히 식별가능한 행위자가 저지르는 가시적 폭력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 외에도 '정치적 올바름'처럼 언어를 통한 상징적 폭력이나 경제와 정치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과 같은 비가시적 폭력도 분명히 존재한다.'²⁷⁾

노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노인에게 행해지는 관용적 폭력 중의 하나가 '거리두기'이다. 사회는 노인들이 존중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며,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노인들의 정체성, 언어, 문화 등에 편견을 갖지 말고 그들의 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 안에는-의도의 순수성과 무관하게-그들로 인해 피해 보고 싶지 않다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방에 고립된 채 가족 구성원들과 단절된 노인, 아침 일

27)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앞의 책, 23-24쪽. 지젝은 물리적 폭력을 주관적 폭력으로, 비가시적인 폭력을 '객관적 폭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찍 홀로 교외선 기차를 타는 노인들, 1호선 지하철을 가득 메운 등산복 차림의 노인들, 그리고 파고다 공원 주위를 배회하는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하지만 사회는 그들에 대한 ‘방기’를 ‘존중’이라는 표현으로 뒤바꾼다. ‘그건 노인들만의 문화야’, ‘그래, 집에만 있으면 뭐해, 육체와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움직이는 게 좋아’, ‘그게 어른들의 문화인 걸, 존중해야 지 뭐’. 이런 표현들의 이면에는 노인들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의 주장이 숨어 있다. 이그나시오 페레라스(Ignacio Ferreras) 감독의 애니메이션 〈노인들〉(2011)은 요양시설이 실은 거리두기를 위한 장치임을 감추지 않는다. 아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한 표면적인 이유는 ‘넓은 아파트보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노인 Z〉에서 개호 로봇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리도 다르지 않다. (“그래도 난 내 청춘을 뺏기는 건 싫어. 할아버지들은 신경 쓰여, 확실히.”) 더 이상 아버지(노인)로 인해 나의 쾌락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는 ‘관용’의 얼굴을 한 채 등장한다. 〈노인들〉 속 요양원에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하지만 이 시설들의 진정한 대상은 노인이 아닌 고객(보호자)이다. “이 레지던스의 진짜 고객은 당신이나 내가 아니”다. 시설들은 고객에게 “브로슈어를 예쁘게 보이려고, 5성 호텔처럼 보이게” 하려고 존재할 뿐이다. 혼자서는 샤워도 못 하는 노인이 대부분인 이곳에서 수영장은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각종 편의시설은 이데올로기의 특징인 ‘정당화’와 ‘은폐’의 성격을 띠고 있다. 거리두기에 대한 윤리적 정당화와 함께 괴롭힘 당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은폐가 그것이다.

거리두기와 관련해 〈노인들〉은 요양시설이 실은 ‘연성화된 감금 기관’에 다름 아님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노인요양시설의 사전적 정의는 “노인

성 질환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수용하여 급식과 요양 따위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시설의 순기능을 인정 하더라도 여기에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바로 ‘감금’이다. 푸코는 지식(담론)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논한 바 있는데, 요양병원은 의학적 담론과 권력이 결합된 생명정치의 대표적 사례이다. 법률적 담론이 감옥 제도로, 교육적 담론이 학교 제도로 이행하듯이 의학적 담론은 병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실질적 권력을 행사한다. 노인들은 요양시설 속에서 ‘고통 없는 고통’과 ‘고립 없는 고립’의 삶을 이어간다. 노인들은 일종의 감금 상태에 있다. 보호자 동의나 동행 없이는 외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 대부분은 이곳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이 모든 것이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보호자의 관용(?) 덕분이다. 요양시설은 이른바 ‘방기된 존재’들의 감금 시설이다. 감옥이 교화와 교정을 목표로 한다면 요양시설은 건강과 안락함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 차이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지점에서 하나가 된다. 가정에서라면 불가능했을 ‘건강과 안락함’이 이곳에 와서야 가능해질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푸코는 18세기 이후 처벌의 목적이 ‘보복’에서 ‘길들임(dicipline)’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의 방식과 목적을 파놉티콘을 통해 이야기한 바 있다. 파놉티콘이 감시를 통해 순종적 주체를 생산하듯, 요양시설 스텝들도 감시를 통해 노인들을 관리한다. 스텝들의 서비스 안에는 면밀한 감시의 시선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노인들의 식사량과 약물 투여, 건강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며,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과 협박성 설득으로 노인들의 순응성을 유지, 강화한다. 이러한 모습은 탈정치적 생명정치의 양가성, 즉 취약한 타자에 대한 존중의 극단화가 오히려 그들을 ‘벌거벗은 생명’, 즉 호모 사케르로 환원해버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 Z>에서 노인 키쥬로는 말 그대로 실험 대상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지 노인이 아닌 것

이다. 소동이 벌어졌을 때 국가가 노인이 아닌 개호 로봇의 훼손을 걱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보여주듯 ‘예외 상태’ 속에서 노인들은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는 존재, 즉 정치적, 법적으로 배제된 호모 사케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관용이 폭력으로 전환되는 극적인 예는 고문이다. 고문을 옹호하는자들의 논리는 전쟁의 대량살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은 대량살상을 불러일으키지만 고문은 개인의 희생을 통해 많은 살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살인과 달리 고문의 관용적 성격은 ‘죽이지는 않는다’이다. 여기에는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있다는 ‘관용’의 논리가 흐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용의 결과는 ‘죽지 못하는 고통’으로 나타난다. 애니메이션 〈노인들〉에서 요양원 노인들의 일상은 하루 세 번의 식사와 약 투여 그리고 휴식과 수면의 반복이다. 문제는 이 루틴이 반복될수록 노인들은 더욱 무기력해져 간다는 것이다. 특히 식사 때마다 제공되는 약은 고문의 도구인 ‘진실의 약’²⁸⁾을 연상시킨다. ‘KGB의 정신의학 기관인 세르브스키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약은 죄수의 심장에 주입되는 순간 맥박이 느려지고 끔찍한 불안 증세를 일으킨다. 겉으로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죽음보다 끔찍한 무기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기 조직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한다.’²⁹⁾ 노인들 역시 하루 세 번의 약 덕분에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간다. 노인들은 그 약 덕분에 휴게실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걱정 없이 멍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관용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안락한 고문’ 아닌가? 차이가 있다면 노인들에게는 털어놓을 비밀

28) ‘진실의 약’이라 불리는 자백제(自白劑/Truth Serum)는 주로 범죄자나 고문 대상자에게 자백을 쉽게 받아내기 위해 쓰는 항정신성 약물이다.

29)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앞의 책, 78쪽.

이 없다는 점이다.

4. ‘보조 기관’을 장착한 젊은 노인

존 스칼지(John Scalzi)의 장편소설 <노인의 전쟁>은 2002년 작가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처음 공개된 후 2005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2006년에는 휴고 상 장편 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존 캠벨 신인상을 수상했다. 존 스칼지는 현재 영미 SF 팬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작가 중 한 명이다. 넷플릭스는 이 소설의 영화화를 위해 판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 작품의 특징은 밀리터리 SF이면서 제목처럼 노인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소설은 75세가 된 존 페리가 아내 캐시의 무덤을 들린 뒤 모병사무소에 입대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시대는 75세가 되면 우주 개척방위군(CDF)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인류가 우주 행성을 개척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보병이 된 노인들이 외계 행성 개척을 위해 외계 존재와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소설에서 흥미로운 장면은 “신체 개량”에 관한 것이다. CDF에 입대한 모든 노인들은 신체 개조를 받는다. 노인들의 DNA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체를 만든 후 그들의 자아와 의식을 새로운 신체에 이식하는 기술이다. 신체 개량 장면은 매우 상세한 묘사와 설명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의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페리 씨, 당신 몸은 늙었습니다. 늙었고 이제 오래 작동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 몸을 구하거나 개량하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몸이란 오래된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육체가 나이를 먹으면

놓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없애 버릴 작정입니다. 육체 전부를 없앨 겁니다. 저희가 당신에게서 남겨 둘 부분은 유일하게 쇠퇴하지 않은 부분, 즉 당신의 정신, 당신의 의식, 당신의 자아입니다.”³⁰⁾

이 장면은 불멸 신화의 현대판 버전처럼 보인다. 노화에 대한 저항은 죽음의 공포와 불멸에 대한 욕망의 산물이다. 소설 속 인물이 “사람들은 죽을 준비가 안 됐고 늙기 싫어서 입대하죠”(36면)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불멸은 신화나 전설 혹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처럼 상상력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불멸 프로젝트’는 실제로 중국, 북한,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독재자의 시신 처리 방식이 그 예이다. 레닌의 사망 후 그의 시신 처리를 놓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 결국 불세비키는 레닌의 시신을 방부처리하기로 결정한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그의 부활과 불멸을 믿었기 때문이다. 불세비키 당원들은 ‘성자의 육신은 썩지 않는다’는 러시아 정교회의 믿음을 ‘공산주의자의 몸은 썩지 않는다’(스탈린의 추도사)로 옮겨 온다. 레닌의 장례위원회의 이름이 “불멸화 위원회”인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러시아 혁명의 일등 공신 중의 한 명인 크라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학이 전능해지는 시대, 과학이 죽은 조직을 되살려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 확신한다.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서 요소들을 추출해 그것으로 그 사람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고 확신한다. 그런 시대가 오면, 인류가 해방되고 과학과 기술의 힘을 총동원해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할 능력과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때가 오면, 과거를 살았던 모든 위대한 인물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때가 되면 되살아난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의 동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³¹⁾

30) 존 스칼지, 『노인의 전쟁』, 이수현 역, 샘터, 2022, 123-124쪽. 이하 쪽수만 표기.

1921년 건신주의(建神主義)³²⁾자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노인의 전쟁』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소설 속 미래는 크라신의 말처럼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서 요소들을 추출해 그것으로 그 사람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는 시대”이다. 이 시대의 과학자들은 노인들에서 추출한 DNA를 바탕으로 진화된 새로운 육체를 만든다. 늙은 육신은 폐기되고 노인들의 의식만 새로운 육체에 기입함으로써 크라신이 말한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할 능력과 힘” 가진 존재로 부활한다. 공교롭게도 <노인Z>의 키쥬로도 자신의 의식과 AI가 동기화되면서 불멸의 존재가 된다.

오늘날 안티에이징 사업은 자본주의 판본의 불멸화위원회이자 건신주의 신화의 부활이다. 신화의 위력이 마법적 상상력과 역사적 상상력의 결합에서 나온다면, 안티에이징의 힘은 의학이라는 과학성과 영원한 젊음이라는 주술성의 결합에서 나온다. 하버드 의과대학은 노화가 질병이며 정복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 속에서 최신 유전학, 후성유전학, 세포 재프로그래밍, 맞춤 장기 생산 등을 통해 ‘불멸의 신화’를 재현하고자 했다.³³⁾ 게다가 안티에이징 사업은 젊음 외에도 ‘늙은 외모’와 ‘젊은 내면’의 간극을 메워 일관된 정체성을 갖게 해준다고 주문을 걸고 있다.

<노인의 전쟁> 속 노인들은 초인적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들은 20대의 육체를 지녔으며 근력과 반응 속도는 거의 초능력자에 가깝다. 그

31) 존 그레이, 『불멸화위원회』, 김승진 역, 이후, 2012, 188쪽.

32) 건신주의는 사회주의적 종교운동이다. 마르크스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과학으로 설명이 어려운 죽음, 고독처럼 신비의 영역을 해명하고자 했다. 세속적 신비주의 신념의 일종인 건신주의는 19세기 유럽에서 주술과 과학이 손을 잡은 또 하나의 사례이다. 고리키, 니체, 말레비치 같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많은 볼셰비키 지도자들이 건신주의를 지지했다.(존 그레이, 위의 책, 166쪽)

33) 데이비드 A. 싱클레어, 매슈 D. 러플랜트가 쓴 『노화의 종말』(이한음 역, 부키, 2020)이 대표적이다. 이들에 의해 ‘노화=질병’이라는 패러다임이 본격화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화를 정복하려는 의학적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들은 25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으며, 100미터를 7초에 주파한다. 2미터 높이뛰기, 10미터 구덩이 뛰어오르기, 200킬로그램 프리웨이트 들기, 수천 번의 턱걸이,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다. 게다가 나노로봇 수십억 개로 만들어진 “똑똑한 피”는 절단된 다리도 0.1초 안에 피를 응고시킬 수 있으며, 잠수도 6분 이상 할 수 있다. 게다가 나노봇을 직조한 전투복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신체를 보호해주며, 총알의 충격을 전투복 표면으로 퍼지게 해 충상을 막아준다. 그 외의 다양한 기능들로 인해 전투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 준다. 뿐만 아니라 뇌 속에 장착된 ‘뇌도우미’(초성능 컴퓨터)는 신체의 모든 기능과 동기화되어 있다. <노인Z>에서도 개호 로봇과 동기화된 키주로는 마징가Z처럼 엄청난 괴력과 비행 능력 그리고 모든 기기와 접속할 수 있는 초인적 모습으로 변한다. 이러한 장면은 젊음과 건강을 되찾아 주겠다는 안티에이징 신화와 함께 프로이트가 말한 ‘보조 기관을 장착한 하나님’을 연상시킨다.

오래전에 인간은 전지전능이라는 이상적 개념을 형성했고, 그 개념을 신으로 구체화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소망해도 도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거나 인간에게 금지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이 신들의 속성으로 부여했다. 따라서 이 신들은 문화적 이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인간은 이 이상에 가까이 도달하여, 그 자신이 거의 신이 되었다. (중략) 말하자면 인간은 일종의 인조신(人造神)이 된 셈이다. 인간이 모든 보조 기관을 부착하면 정말로 신처럼 당당하다. (중략) 미래에는 문명 분야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새로운 진보가 이루어질 테고,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신을 닮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를 위해서는 현재 인간이 신에 버금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³⁴⁾

34) 프로이트, 『문명 속의 불안』, 김석희 역, 열린책들, 1998, 276-277쪽.

아이언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그리고 『노인의 전쟁』과 〈노인Z〉의 인물들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과학적 ‘보조 기관’을 장착한 초영웅, 즉 ‘보철을 한 하나님’의 문화적 재현이다. 하지만 안티에이징 테크놀로지는 이 모든 것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실제로 의사는 보철(메스)을 든 ‘의님’이며, 이들 덕분에 노인들은 ‘보철을 한 인조신(젊은 노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문제는 인조신(젊은 노인)들이 프로이트의 말처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피조물’이 비극적인 운명의 길을 걸었듯이, 현실 속 ‘젊은 노인’들의 ‘행복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이들 앞에는 ‘젊은 노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철을 한 젊은 노인’의 첫 번째 책무는 엄청난 비용, 곧 소비이다. 소설 속 노인들의 새로운 육체는 엄청난 비용의 결과이다. 〈노인Z〉의 개호 로봇에도 국가의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다. ‘젊은 노인’의 신체는 자선사업의 결과물이 아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노인의 전쟁〉에서 입대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목숨값으로 입대를 선택한 자들에게만 신체 개량의 기회가 오듯, 현실의 안티에이징도 ‘부활’의 비용을 감당한 노인들에게만 허락된다. 그런데 이 기회는 계층, 계급, 인종, 젠더 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이렇게 재탄생한 신체에도 계획된 진부화의 타이머는 어김없이 작동하고 있다. 그들은 보철로 이루어진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초기 비용을 훌쩍 넘기는 계산서를 각오해야 한다. 성형수술, 보톡스, 필러 등 젊음의 보조 기관들은 주기적인 교체를 요구한다. 계획된 진부화로 인해 새로운 보조 기관의 출현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그에 맞춰 교체 시기도 함께 빨라진다. 만약 이것을 포기할 경우 얼굴이 무너져내리는 등 정상적인 노화보다 더욱 끔찍한 결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젊은 신체는

기쁨이 아니라 값을 수 없는 사채 이자가 된다. 치솟는 의료비와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자선이 충돌할 때 ‘보철을 한 젊은 노인’의 행복감은 종료된다. 〈노인의 전쟁〉의 교관은 신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브리핑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즐겨라. 과장 없이 말하지만 우주개척방위군의 생활에 보상이 있다고는 해도 자네들이 새로운 몸에 완전히 무책임해질 수 있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 시간을 현명하게 쓰기 바란다. 마음껏 즐기기 바란다. 이상 해산!”(153쪽)

‘마음껏 즐기라’는 교관의 설교는 초자아의 명령 그 자체이다. ‘초자아는 젊잖은 목소리로 우리 귀에 불가능한 요구를 퍼붓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즐기는, 잔인하고 가학적인 윤리적 작인이다.’³⁵⁾ 〈노인의 전쟁〉에서 개량된 신체를 얻은 그들에게 주어진 쾌락의 시간은 고작 7일뿐이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미친 듯이 섹스를 한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의 종료와 동시에 그들은 ‘마련된 죽음의 장’인 전쟁터로 끌려간다. 이는 잠깐의 쾌락 후 치솟는 의료비와 제품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괴로워하는 현실 노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프로이트의 통찰이 여기에 있다. 새로운 보조기관을 통해 ‘쾌락원칙 너머’를 기대했지만 정작 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뿐인 것이다.

〈노인의 전쟁〉에서 루이즈 상사는 신병들에게 MP-35 소총을 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는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울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목숨

35) 슬라보예 지젝, 『HOW To READ 라캉』, 박정수 역, 웅진지식하우스, 2015, 123쪽.

을 구할 것이다. 미합중국 해병대는 돌대가리들이지만, 해병대 소총 강령 하나만은 옳다. 강령의 일부를 읊어보겠다. ‘이것은 내 소총이다. 비슷한 소총이 많지만 이것이 내 소총이다. 내 소총은 내 가장 친한 친구다. 내 삶이다. 소총 없는 나는 무용지물이다. 소총 없는 나는 무용지물이다. 나는 내 삶에 통달하듯 소총에 통달해야 한다. 나 없는 소총은 무용지물이다. 소총 없는 나는 무용지물이다. 나는 내 소총을 제대로 쏘아야 한다. 나는 내 소총을 제대로 쏘아야 한다.’”(196쪽)

이 총이야말로 ‘보철’을 위한 ‘비용’의 은유 아닌가? 전장터에서 ‘소총’이 ‘내 삶’이듯, 보철을 한 ‘젊은 노인’들도 MP-35 소총(돈)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하는 적”(노화)을 향해 제대로 쏘아야 한다. 그것도 노화가 다시 나를 정복하기 “전에 쏘아야 한다”. 노화와 의 싸움은 전쟁 그 자체이다. 그런 면에서 영화 <인터스텔라>로 유명해진 20세기 초 신낭만주의 시인 딜런 토마스의 시 구절- “어두운 밤을 쉬이 받아들이지 마시오/노년은 날이 저물수록 불타고 포효해야 하기 때문이니/꺼져가는 빛을 향해 분노하고, 또 분노하시오”³⁶⁾ -은 안티에이징 회사가 가장 사랑하는 비유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노화와 의 전쟁은 언제까지인가? 소설에서 전쟁은 영원하다고 말한다. 우주가 무한하기 때문이다. 노화와 의 전쟁도 마찬가지다. 애당초 그것은 불가능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의 전쟁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죽을 때까지이다. 적어도 ‘젊은 노인’ 중독자들은 죽을 때까지 노화와 의 전쟁을 벌일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 『노인의 전쟁』에서 신병들은 초인적 신체에도 불구하고 4분의 3의 인원

36) 딜런 토마스의 작품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말라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은 영화 <인터스텔라>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번역은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말라” 인터스텔라 속 ‘그 시’ 전문을 보니>, 『쿠키뉴스』, 2014.1.07., 접속일: 2024.10.04.,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1411070127> 참조.

이 10년이 채 못되어 죽는다. 이는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통계치”(158쪽)이다. 하지만 1년도 못 돼 주인공을 제외한 모든 신병이 전사한다. 보철을 한 ‘젊은 노인’의 유효 기간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 역시 통장 잔고와 내일을 알 수 없는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얼마든지 소설 속 신병과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5. 결론

안티에이징을 신비화하고 숭배하는 사회 속에서 온전한 ‘늙음’은 불가능하다. 요컨대 늙음 없는 늙음, 노인 없는 노인의 시대, 이른바 ‘노인’이 부재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늙음을 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에서 ‘늙음’과 ‘노인’의 존재에 대한 진지한 사유는 불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주류 노년학에 대해 늙음의 영적, 도덕적 차원을 복원하려 한다. 그들은 노화를 불가피한 추락이 아닌 새로운 내면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주장한다. 또는 늙음이 야말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진정한 창의성을 발견하는 때라며 놀이와 예술치료의 효과를 강조하기도 한다. 영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속도를 늦추고 내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인생에서 가장 풍성한 경험들이 문을 열고 우리를 반길 것”³⁷⁾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주장들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8.1%로 OECD 1위이며,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10명 중 4명의 노인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³⁸⁾ 이런 환경 속에서 노인의 영성, 창

37) 마켓릿 크룩생크, 앞의 책, 362쪽.

의성 등의 논의는 오히려 계층, 젠더 등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희석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보다 진지한 방향으로 노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을 수동적, 잉여적 존재로 바라보려는 사회적 시선을 거부하는 것이다. 노인들을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고착화하는 것은 그들이 지닌 존재론적 가능성을 거세할 뿐이다. 또 하나는 노인의 존재론적 고통을 직시하는 것이다. 오늘날 노인 담론은 스펙타클하다. 화려한 언어와 수사를 동원해 행복한 노년, 성공적인 노년이 마치 당장이라도 가능할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알려져 있듯이 스펙타클의 효과는 빛의 이중성에 있다. 빛은 시선을 가능케 하지만 너무 밝은 빛은 도리어 시선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화려함에 눈이 팔려 다른 것을 못 보게 만든다.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노인 담론과 정책들이 어찌면 진짜 문제들을 가리는 스펙타클의 정치일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노인들의 겪는 진정한 고통을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레비나스의 말처럼 고통스러운 타자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 용기는 노인과 사회를 위한 새로운 언어(담론)의 발명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는 인문, 사회, 과학 등 다양한 학문 간의 진지한 교섭 과정을 통해 비로소 형태를 갖추갈 수 있을 것이다.

38)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57#> (검색일: 2024.10.04.)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기타쿠보 히로유키(北久保弘之), <노인 Z>, 1991.
이그나시오 페레라스(Ignacio Ferreras), <노인들>, 2011.
켄 로치(Ken Loach), <나, 다니엘 블레이크>, 2016.
존 스칼지(John Scalzi), 『노인의 전쟁』, 이수현 역, 샘터, 2022.

2. 논문과 단행본

- 강소량 외, 「50+생애전환교육의 특성과 방향」, 서울시 50플러스재단, 2019, 1-158쪽.
권혁남, 「고령화 시대 노인자살에 관한 윤리적 분석」, 『생명윤리』 제12권 2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21, 1-20쪽.
김희경, 「“내가 죽으면”: 초고령화 일본사회에서 생명정치와 죽음윤리」, 『한국문화인류학』 제51권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8, 59-94쪽.
남상호, 「생애주기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가계자산 분포의 특징」, 『한국 복지패널 학술대회논문집』 제1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01-217쪽.
박동석, 김대환, 이연선, 『고령화 쇼크』, 굿인포메이션, 2003.
박형욱, 「노쇠한 사이보그」, 『과학기술학연구』 제13권 1호, 한국과학기술학회, 2013, 41-76쪽.
서동수, 「좀비, 엑스 니힐로의 주체와 감염의 윤리」, 『대중서사연구』 제25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9, 181-209쪽.
유수정, 「초고령사회 SF적 상상력의 구현」, 『일본문화연구』 제79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21, 259-276쪽.
조미라·김양지, 「포스트휴먼과 그 이웃(1)-기술시대의 노인」,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4호, 2020, 63-86쪽.
최성민, 「존엄한 죽음과 존엄한 삶의 조건들」 『대중서사연구』 제30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4, 243-277쪽.
데이비드 A. 싱클레어, 매슈 D. 러플랜트, 『노화의 종말』, 이한음 역, 부키, 2020.

- 마켓릿 크룩생크, 『나이들을 배우다-젠더, 문화, 노화』, 이경미 역, 동녘, 2016.
- 세르쥬 라투슈, 『낭비사회를 넘어서』, 정기현 역, 민음사, 2019.
- 슬라보예 지젝, 『팬데믹 패닉』, 강우석 역, 북하우스, 2020.
- 슬라보예 지젝, 『HOW To READ 라캉』, 박정수 역, 응진지식하우스, 2015.
-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이현우 외 역, 난장이, 2014.
- 존 그레이, 『불멸화위원회』, 김승진 역, 이후, 2012.
- 프로이트, 『문명 속의 불안』, 김석희 역, 열린책들, 1998.

3. 기타 자료

- 〈저출산 보다 더 큰 문제…'이대론 한국 망한다?'〉, 『SBS Biz』, 2024.07.01., 접속일: 2024.10.14., <https://v.daum.net/v/20240701120008553>
- 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57#>
- 〈70세 이상 성형외과 수술 건수 급증…'눈·리프팅' 성형 많아 외〉, 『쿠키뉴스』, 2021.04.22., 접속일: 2024.10.14.,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220043>
- 〈[오후초대석] 말동무에 배설보조까지...고령화 사회에 '돌봄로봇' 주목〉, 『SBS Biz』, 2023.08.22., 접속일: 2024.10.14., <https://biz.sbs.co.kr/article/20000132431?division=DAUM>
-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말라” 인터스텔라 속 ‘그 시’ 전문을 보니〉, 『쿠키뉴스』, 2014.11.07., 접속일: 2024.10.04.,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1411070127>
- Daum 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18XX84300867>

Abstract

Post-Political Biopolitics and Ontology of The elderly

Seo, Dong-Soo(Shinhan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existential status of older adults today through the lens of critical gerontology. Currently, the predominant trend in gerontology is focused on 'successful aging'. Older adults are increasingly viewed as exemplars of 'successful aging' itself. Loneliness, solitude, and reflections on pain are considered hindrances to successful aging.

Existing aging policies construct older adults as passive beings. They are not only reduced to objects of management and control but also degraded to incompetent surplus existences. Examples illustrating this include the animation "Oldman Z" and the film "I, Daniel Blake", where older adults become appendages of welfare systems or victims of neoliberal policies. The lifecycle theory, a major theory in elder care, resembles nothing more than the lifecycle of a product. Moreover, similar to the logic of planned obsolescence of commodities, old age is constructed as an existence to be discarded. In post-political biopolitics, older adults are exposed to violence under the guise of tolerance. The isolation and decline of older adults are justified under the guise of recognizing differences. Nursing homes are nothing more than institutionalized confinement facilities. Furthermore, as se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lder adults exist in a state of exception, where they can be discarded at any time, thus becoming excluded 'homo sacer' politically and legally. The animation "Wrinkles" and the novel "The Old Man's War" are representative examples.

In a society that mystifies and worships anti-aging, true 'aging' is impossible. In short, we have entered an era of aging without old age, of older adults without

elders. Serious discourse on the existence of 'aging' and 'older adults' is impossible in a society that defines aging as an enemy. Above all, we must be able to witness the genuine suffering experienced by older adults. This courage should lead to the invention of new language (discourse) for older adults and society, which can only take shape through an integrated process across various disciplines.

(Keywords: Super-aged Society, gerontology, ontology, planned obsolescence, post-political biopolitics, tolerance, *Oldman Z, I, Daniel Blake, Wrinkles, Old Man's War*)

논문투고일 : 2024년 8월 29일
논문심사일 : 2024년 10월 14일
수정완료일 : 2024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4년 10월 18일